

| 글. 김은미_ Kim, Eun-mee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소모적 경쟁 공모 관습을 버리자

Kick the Architectural Competition
Convention



자발적 죄수들 : 시카고 현대미술관에 모인 Navy Pier 현상설계 참여 건축사들 Courtesy Terry Surjan

“우리 건축계에서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수히 버려진다. 현상설계에 제출을 하기 위하여 들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은 지적 능력을 소모적으로 써 없애 버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당신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초청하겠다. 하지만 미리 공지하자면 80%의 경우 우리가 당신의 생각을 버려 버리고는 그것이 완전히 헛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상 어떤 다른 전문 집단이 일을 하기 위해 이런 초청 방식을 감수하겠다고, 혹은 참아보겠다고 할는지 나는 모르겠다...”

- 렘 콜라스 인터뷰 중

아래에 인용할 아티클은 2011년에 치러진 <the Navy Pier redevelopment competition>의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갔던, IIT 교수이기도 한 건축사 마셜 브라운이 architect's newspaper에 올린 글의 일부다.

Navy Pier redevelopment competition에서 우리 팀이 파이널 라운드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을 즈음, 문득 나는 왜 모든 건축사, 조경사, 또는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불확실한 보상의 한정된 약속을 위해 이리도 고되고 불쾌한 경험을 감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나 자신은 이번 공모전의 과정으로 새로 세운 나의 사무실이 대중에 노출되는 기회와, 더 나아가 어느 정도 금전적 등의 혜택도 누렸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어떻게 하면 신생 입지에서 벗어날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했을 뿐 아니라 우리 건축계의 리더들이 이 부당한 착취 공모 시스템의 포로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젊은 건축사들이 작은 상의 희망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또는 어쩌면 그들의 커리어를 올려줄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공모전을 겨냥한 비판이 아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경연 곧 그 경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는 권위가 있거나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 경쟁 공모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작년에 열린 <425 Park Avenue> 현상설계에 참여한 렘 콜라스, 자하 하디드, 노만 포스터의 프레젠테이션 비디오를 보면서 경고로 발전되었다. 그들이 보여준 계획은 명성 수준에 미치지 못한 평범한 것들이었다. 맨하탄 고층 빌딩에 대한 살아 있는 결출한 이론가로서의 렘 콜라스의 입지를 생각할 때, OMA의 계획안은 특히 실망스러웠다. 쌓이거나 둘러 세워진 세 개의 큐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계획은, 지금껏 우리가 OMA가 최고로 잘해왔던 내재적인 계획의 복합성이나 도전적 서술이 결합된 단순한 formalism으로 회귀한 모습이었다. 어쩌면 업무시설이라는 건물유형이 건축사의 혁신적인 능력을 제한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

만일 그 결과의 이유가 건물유형 때문이라고 치면, 왜 이러한 공모 형식을 치러야 하는 걸까? 최근에 열렸던 시카고 〈Prentice Hospital〉 현상설계의 결과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았고, 해외 스타건축사 초청이 없었는데도 위와 유사한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다. …중략…



Navy Pier competition entry by Marshall Brown Projects, Davis Brody Bond, Martha Schwartz Partners, and Halcrow Yolles. Courtesy Marshall Brown Projects

WTC 공모는 현상설계들이 어떻게 잘못된 것을 장려하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 건축사들을 모두 물리치고 앉은 한 건축사의 승리였다. 우승자와 패배자로 나누는 관념은 신자유주의의 전형이며, 특히나 선망하는 것이 같은 무리들이 확실성이 낮은 그 무엇을 원할 때 서로에게 반감을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다.

이런 방식은 주요 현상공모의 팀들이 매우 높은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러 건축사들을 연합하게 하고 또 주요 협력사들과 합치는 방식으로 모양새를 부풀리는 모습으로 더욱 상황을 나쁘게 발전시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방식은 팀 내부에서 설계 주도권을 차지하여 만일 그들이 당선할 경우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가기 위한 경쟁을 야기하게 된다. 결국은 조직의 수석 건축사가 매우 작은 신생 사무소와 작은 기관 발주용역이나 심지어 미술관 임시 설치 조형물을 두고 경쟁하는 모양새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 공모는 언론의 관심에 대한 희망이나 더욱 크고 많은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믿고 쫓는 중간 규모의 사무소에게 불가피한 지출을 하게 만들게 하는 원흉이다.

나는 작년 시카고에서 열린 현상공모의 초청을 거절했으나 지루하게 지켜본 참관자였다. 이런 불행한 세대 전쟁 같은 공모 형식은 새로운 목소리들이 필드로 들어오는 것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어 혁신을 억누른다.

영웅적인 신화는 잊혔다. 우리는 반드시 공모의 최고인인 당선작과 동시에 그 이외의 참여작들도 인식해야 한다. 최근 공모전 역사의 성향은 이 공모가 치러지기 훨씬 이전부터 오랜 시간동안 이론을 발전시켜 온 결과물들의 경쟁이었다. James Corner(James Corner Field Operations)는 Fresh Kills와 High Line 공모에서 당선되기 이전부터 당선작들에 보이는 주요점들을 연구하고, 드로잉을 만들고 글로 정리하여 『Taking Measures Across the American Landscape』(1996)라는 책을 펴내었다. Bernard Tschumi는 그 유명한 La Villette 이전 Manhattan Transcripts(1976~81)를 만들어 냈으며, Rem Koolhaas는 『Delirious New York』(1978)를 펴내며 그의 이야기를 알렸다.

다행히 우리 모두를 위해, 오늘날의 신진 스튜디오 사무실들은 훌륭한 작품들의 생산과 출판을 위한 기관과의 리소스 네트워크(대학, 갤러리, 상호 심사가 가능한 출판 기관과 지원금 등)를 가지고 있다(미국의 경우). 경쟁 공모와는 달리 이러한 창의적이고 학구적인 프로그램들은 핵심 원칙을 공유하며, 서로 협력을 구축하고 상호 지원을 한다. 이 길은 너무나 명백하게도 공모에 참가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우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건축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이다.

내가 New York Times 인터뷰에서 Thom Mayne에게 건축 현상설계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의 대답은 “당신이 어떻게 이 시스템을 대체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였다. 오래된 중독은 끊기 어렵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는 새로 태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간으로 초청을 한다. 그 치료법은 너무나 간단명료하다. 현상설계 세계로부터 가끔씩 빨리,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빠져 나와야 한다.

위에 옮긴 글은 일부 어조가 다소 강하며 주관적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의 현실 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에서 쓴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 우리 건축계에서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논점이 있음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 첫째, 우리 건축사의 창작물에 대한 스스로의 자존심과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점. 둘째, 지금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공모 방식은 우리의 전문 작업 존엄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사용자 시선에 맞추어 발전되어 온 방식이라는 점. 셋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현상설계는 너무나 당연히, 하지만 일반 수주 방식에서도 만연해 있는… 언급하기도 부끄럽다.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과당 텡핑 경쟁…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 미만 캐러멜도 그 원가 미만으로는 팔지 않는다. 이러한 소모적 경쟁은 모두가 존립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갈 수밖에 없다. 소모적인 경쟁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며 스스로의 원칙을 만들어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

* 윗글의 일부는 Architect's News Paper의 기사에서 발췌·인용하였습니다.